

東漢 《釋名》의 聲母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權赫峻**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출발
3. 聲母 관련 제 문제
4. 聲母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釋名》의 언어학적 의의
5. 결론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釋名》은 東漢(AD 25-220) 末, 劉熙¹⁾가 제작한 것으로, 聲訓²⁾의 방법을 채택하여 제작된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訓詁書이다. 원래의 의도는 漢語의 어원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그러나 聲訓의 방법 자체가 음과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건강부회한 측면이 있어 어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자가 인지하고 있는 음성이나 음운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 이 논문은 2010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생졸 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東漢 말에 활약했던 훈고학자이다. 그의 고향은 齊의 北海 즉 현재 山東省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2) '音訓'이라고도 하는데 음성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자의 의미로 被訓字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평하할 수 없다.

본 논문은 편폭의 제한으로 저자, 저술 연대, 판본 등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며 《釋名》의 聲訓이 반영하고 있는 聲母 체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만 논의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釋名》의 聲母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이미 드러났으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釋名》의 음운 체계가 갖는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동시대의 音讀 등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예를 들면 동일 계열의 聲母 안에서의 접촉이나 기존 연구를 통하여 이미 확인된 見組나 影組 간의 빈번한 접촉 등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3.1에서는, 中古漢語의 章組 가운데 파찰음(affricate)에 해당하는 聲母인 章母·昌母·禪母의 구개화, 즉 파찰화 여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章組는 先秦에서 端組·知組·見組·影組와 교체하므로 이를 치경 폐쇄음³⁾으로 간주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이들은 이후에 후치음⁴⁾ -j-의 영향으로 구개화, 즉 파찰화하여 中古漢語에 이르게 된다. Bodman(1954)과 Coblin(1977-1978, 1983)은 《釋名》이 中古漢語의 면모에 가까운 구개화 이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精組와 접촉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說文》을 비롯한 다른 지역 방언을 나타내는 讀若이나 기타 音讀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章組가 先秦과 동일하게 端組나 知組와도 접촉한 다량의 예가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

3.2에서는 기본 자음에 후치음 유음 l 성분을 동반하고 있는 中古漢語의 書母·以母·邪母·船母에서 l의 탈락이나 변화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 Bodman(1954)과 Coblin(1977-1978, 1983) 역시 이들 聲母에 변화가 발생

3) '폐쇄음(stop)'은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비음까지 포함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 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음을 제외한 구강 폐쇄음만을 지칭하기로 한다.

4) 聲母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는 2.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한 것으로 보아 마찰음으로 재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章組와의 접촉이 빈번하므로 3.1에서 논의할 章組의 과찰화 즉 구개화 여부에 따라 이들 聲母에 대한 결론도 달라진다. 즉 치경 폐쇄음의 章組가 구개화되지 않았다면 先秦漢語의 모습은 보존되었을 것이고 구개화되었다면 모종의 다른 음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3.3에서는 《釋名》의 복성모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東漢 시기에는 先秦 이전부터 보존되어 오던 복성모가 그 성격을 상실하여 일부 혹은 상당수가 단순 성모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Bodman(1954)의 연구를 통해 《釋名》에 복성모가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釋名》의 접촉의 수량적 제한으로 인하여, 저자가 인식하고 있는 복성모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복성모가 단순 성모로 변화했는지 등에 대하여 완벽하게 복원하거나 기술할 수는 없다. 이 절에서는 《釋名》에 나타난 접촉례로 파악이 가능한 복성모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찰한다.

3.에서 확인된 《釋名》의 체계는, 東漢 무렵의 실제음을 반영한 각종 佛經 대역의 음운 및 다른 학자들의 音讀 자료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함축하는 언어학적 의미를 4.에서 기술한다.

논의의 편의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聲訓의 각 조는 Bodman(1954)의 항목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한다. 또 《釋名》 이외의 다른 자료의 讀若을 비롯한 音讀을 제시하여 설명할 경우 학자명이나 자료명과 함께 Coblin(1983)이 채택한 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Bodman은 中古와 上古漢語의 재구의 근거로 Karlgren의 체계를 주로 채택하였는데 현재 Karlgren 이후 그에 대한 수정과 비판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Karlgren 이후에 수행된 上古漢語의 음운에 관한 새로운 성과에 기반 한다면 《釋名》에 대하여 더 발전된 해석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성과가 망라되어 있는 鄭張尙芳(2003)의 上古漢語 재구음을 채택한다. 그러나 그의 재구음 가운데 수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증거와 함께 따로 설명하여 수정한다. 音讀 자료를 예시하는 경우 그의 재구음

도 함께 밝히되 이럴 경우 上古漢語의 표지인 * 부호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문의 서술에서는 이 부호를 사용하여 中古漢語와 구분하기로 한다.

1.2 기존 연구 현황

《釋名》의 전체 음운 체계를 연구한 단일한 전문적인 저작은 없다. Bodman(1954)은 聲母만을 다룬 최초의 근대 저작이며 Serruys(1957)는 Bodman의 연구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Coblin(1986)은 《釋名》의 韻母에 관한 논문이며 Coblin(1977-1978, 1983)은 東漢 시기의 음운을 학자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聲母 체계를 재구한 바 있다.

Bodman(1954)은 Part I의 제 1장에서 《釋名》의 작자와 시기, 판본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단순 성모와 그들 간의 관계를 논의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복성모 문제를 다루었다. Part II에는 1,257 개에 달하는 접촉레가 上古와 中古漢語 음운으로 표기된 색인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논의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주석도 포함되어 있어 《釋名》의 음운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연구가 上古가 아닌 中古漢語의 재구음을 기준과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과(Tung 1955), 다른 외부 증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복성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점(Downer 1957)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후일의 연구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는 章組의 上古漢語 음운이 구개화된 폐쇄음 *t-, *th-, d- 등으로 재구된 Karlgren에 근거하였고 《釋名》에서 章組가 파찰음으로 변화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Coblin(1977-1978, 1983)은, 이들이 精組와 접촉하고 있다는 근거로 역시 章組 전체와 以母·邪母 등을 마찰음이나 파찰음으로 재구하고 있다. 章組의 상당 수가 端組·知組·見組·影組와 접촉하는 것은 과거의 音讀을 계승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실체는 파찰음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釋名》에 나타난 언어 현상이 복수의 시기와 복수의 지역의 음운이 융합되어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외에도 羅常培·周祖謨(1958)와 祝敏徹(1988)도 《釋名》의 음운 체계를 다루고 있으나 기존 성과에 근거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祝敏徹은 聲母 분야에서 동일 성모류 간의 접촉레만 나열했을 뿐 그 이외의 음운학적 의미를 지닌 분석은 결핍되어 있다.

2. 연구의 출발

본 논문은 鄭張尙芳(2003)의 上古漢語 체계에서 출발한다. 그는 기존의 上古漢語 음운 연구에 대한 개괄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비판을 가하여 상당수의 글자를 해성족 별로 모아 上古漢語의 음운을 재구한 바 있다. 그의 저작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각 해성족 별 거의 모든 글자를 망라하여 사전식으로 정리하여 참고하기 용이하다.

2) 각 해성족의 음운을 재구할 때 각 해성족이나 개별 글자에 대하여 諧聲에서의 접촉은 물론 異文, 通假, 각종 전적에서의 주석, 친족어의 동원사, 타언어의 차용어 등의 광범위한 자료에서 근거를 찾아 치밀하게 재구하는 등 최신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그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上古漢語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는데 전기는 甲骨, 金文, 諧聲과 假借 등으로 대표되는 殷, 초기 周 시기를 가리킨다. 중기는 《詩經》 등의

先秦 시기 문헌이 반영하는 음운 시기이며 후기는 秦漢魏의 각종 자료가 반영하는 음운 시기이다(2003: 33).

본 논문의 범위가 聲母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의 上古漢語 聲母 체계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聲母는 전치음(冠音), 기본 자음, 후치음(墊音)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본 자음은 諧聲의 主諧字로, 음운적으로는 이로부터 동일 해성족 안의 다른 글자까지 파생된다.

이 가운데 기본 자음으로만 구성된 성모 즉 단순 성모는 다음과 같다(2003: 70)⁵⁾.

k 見	kh 溪	g 群匣	ŋ 疑	ŋh 哭		
q/? 影	qh/h 曉	g/fi 云匣				
p 幫	ph 滂	b 並	m 明	mh 撫		
t 端	th 透	d 定	n 泥	nh 灘	l 以	lh 胎
s 心	sh/tsh 清	z/dz 從			r 來	rh 寵

위의 표에서 자음 뒤의 h는 유기음 표지로 복성모와는 상관없다. 특히 lh와 rh는 무성의 유음으로 각각 [lh]와 [rh]임을 나타낸다. 또 r과 l에는 폐쇄음화의 기능을 가진 변이형(variant)이 있다. 이들은 각각 r'과 l'로 표기되는데 r'은 喉牙脣音を 知組의 2등으로 변화하게 하며, l'은 喉牙脣音を 端組·知組 3등으로, 心母를 精母로 변화하게 한다.

그의 복성모 구조는 전치음과 후치음의 존재 형태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전치음식

기본 복성모나 기본 단순 성모에 각종 전치음이 첨가되는 구조이다. 전치음의 종류는 다양한데 s-, ?-, h-, fi-, m-, N(비음)-, r-, p-, t-, k- 등이 있다.

5) 사선 ' / '의 뒷 부분은 上古漢語 후기나 그 이후의 음운이다. 이하 마찬가지.

2) 후치음식

이는 기본 자음에 후치음이 첨가되는 구조인데 후치음은 일반적으로 r, l, j, w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j와 w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r이나 l이 j나 w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즉 kwj-, klj-, kwr-과 같은 형식이 가능하다.

3) 전치음식과 후치음식이 혼합된 구조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인 中古漢語의 章組는 후치음 j의 영향으로 치경 폐쇄음이 中古漢語에 이르기까지 파찰화, 즉 구개화된다. 書母는 기본 자음인 l에 전치음 h와 후치음 j가 더해진 것이고 船母는 기본 자음 l에 전치음 f와 후치음 j가 더해진 형태이다. 以母와 邪母는 모두 기본 자음이 l인데 邪母에는 후치음 j가 첨가된 반면 以母에는 후치음 j가 없다⁶⁾.

3. 聲母 관련 제 문제

3.1 章母·昌母·禪母의 구개화 여부

본 절에서는 中古漢語의 章組 파찰음, 즉 章·昌·禪母의 구개화 여부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이들은 上古漢語에서 치경 폐쇄음인 端組의 *t-, *th-, *d- 등과 해성 행위를 하고 있어 Karlgren(1957) 등은 이 성모들을 구개화된 폐쇄음 *t-, *th-, d- 등으로 재구하였다. 그러나 李方桂(1971)는 章組⁷⁾를 j가 동반된 端組의 변이형으로

6) 이는, 李方桂(1971: 11)가 以母를 *r-로, 邪母를 *rj-로 재구한 것에서 r을 l로 바꾼 차이만 있다. 李方桂(1971: 10)는, 以母를 미국 영어의 ladder나 latter의 중간 자음의 음인 탄설음 d(flapped d)에 해당한다며 *r-로 재구하였다.

7) 본 절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章組는 中古漢語의 파찰음인 章·昌·禪母를 지칭한다.

간주하여 *tj-, *thj-, *dj- 등으로 수정하였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재구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는 이 점에서 李方桂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釋名》에서 章組는 章組 자신 이외에 知組와 精組와도 접촉하는데 Karlgren의 체계에 근거한 Bodman(1954: 29-30)은, 이와 같이 知組와 精組 성모와 접촉이 모두 가능한 것은 章組가 구개화 음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知組가 東漢 시기에 구개화되었기에 章組와 접촉이 가능했으며 章組 역시 구개화되었으므로 파찰음인 精組와도 접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Coblin(1983: 54-55)은 주로 李方桂의 上古漢語 체계를 수용하여 논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章組의 음운이 지역에 따라 두 종류로 대별된다는 논지를 피력하였다⁸⁾.

첫째, 표준음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자료이다. 許慎의 '說文 讀若'을 비롯한 杜子春, 鄭興, 鄭衆, 服虔, 高誘 등에서는 章組가 精組 등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폐쇄음으로 남아 있는 증거이다.

둘째, 동부 지역의 음이 반영된 音訓 자료이다. 鄭玄, 《釋名》, 《白虎通義》, 應劭, 불경 대역 등으로 이들 자료에서는 章組와 精組의 접촉이 있어 章組가 파찰음화, 즉 구개음화 하였다. 특히 《釋名》이나 鄭玄의 자료에서 章組가 端組나 知組의 폐쇄음과 접촉하는 경우는 오래 전의 音讀이나 첫째 류의 音讀을 답습한 것이며 章組의 구개화는 鄭玄이나 劉熙의 고향인 동부 방언을 반영한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논증을 통하여 수정한다.

鄭玄에 출현한 章組와 精組의 접촉의 예로 Coblin(1983: 55)은 다음을 제시하였다⁹⁾.

8) Coblin은 각 학자들의 고향이나 활동 지역에 따라 이들의 音讀이 반영하고 있는 각 방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1977-1978: 213).

鄭玄·劉熙: 동부, 高誘: 북부, 杜子春·鄭興·鄭衆·服虔: 중원, 應劭: 남부

9) 여기에서는 Coblin의 中古漢語 재구음을 표기한다.

106. 資 tsi	至 tsi	
202. 踐 dzjän:	善 zjän:	
285. 酬 zjəu	酒 tsjəu:	周 tsjəu
303. 詛 tsjwo-	祝 tsjəu-	沮 tshwo-
409. 適 tsjak, sjäk	責 tsek	

Coblin은 이를 章組의 구개화 즉 破擦화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Karlgren, 李方桂 등이 精組의 上古漢語를 破擦음인 TS 組로 재구한데 근거한 것이나 본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鄭張尙芳은 '精組 破擦화 後起'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莊組를 포함한 精組의 기본 자음을 破擦음이 아닌 s로 보고 있다(2003: 92-104).

첫째, 티베토버만어계 언어에서 破擦음이 된 것은 나중의 일이다.

둘째, 後漢과 三國 시기의 불경 대역에서 後漢 즉 東漢 시기의 대역에 TS 組가 결여 되어 있다(俞敏 1984).

위에 의거하여 鄭張尙芳은 上古漢語의 精組와 莊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재구하였다.

精 ?s-	清 sh- [sh-]	從 z-
精 ?s-	清 shl- [shl-]	從 zl-(來母나 以母와 通譜하는 경우)
莊 ?sr-	初 shr- [shr-]	崇 zr- ¹⁰⁾

위에서는 精組의 일부가 來母나 以母와 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본 자음 이외의 또 다른 유음이 동반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정이 타당함을 보이는 세 가지 근거를 아래에 제시한다.

1) 《爾雅·釋草》의 “茨, 蒺藜.”를 통해 ‘茨’가 유음을 동반한 복성모 구조임을 알 수 있다. ‘藜’는 來母로 *r-이지만 ‘茨’가 從母이므로 r과 교체 가능한 또 다른 유음인 l을 동반한 것이다.

10) 中古漢語의 莊組는 精組의 l을 r로 바꾼 차이만 있다.

2) ‘尖’, ‘刺’, ‘銛’는 [+날카롭다]의 의미 자질을 가진 동원사들로 精組인 ‘尖’(精母)과 ‘銛’(心母)가 以母인 ‘刺’과 관계있으므로 l을 동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尖’, ‘刺’, ‘銛’는 각각 *ʔslem, *ʔlem, *slem으로 재구된다(鄭張尙芳 2003: 105).

3) 李方桂는 ‘酒’(精母)를 *tsjəgwɣ로 재구하였고 이와 동일 해성족인 ‘酉’를 *rəgwɣ로 재구하였다. 또 ‘猶’는 *kjəgwɣh, *rəgw, *rəgwɣh의 세 가지 讀音을 갖는다. 그의 재구음에서는 ‘猶’의 見母 독음 *kjəgwɣh가 다른 讀音과의 음운적 관련을 찾을 수 없고 ‘酒’도 *ts-이므로 다른 讀音과의 관련을 찾을 수 없다. 이 글자들은 ‘酉’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유음 l이 기본 자음이어야 한다. 이 세 글자는 鄭張尙芳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재구된다.

酒: ʔsluʔ/sl'uʔ

酉: luʔ

猶: klus, lu, lus

따라서 일부 精組는 유음 l이 기본 자음인 복성모 구조인데¹¹⁾ 위에서 Coblin이 열거한 鄭玄에서의 章組와 精組의 접촉례를 鄭張尙芳의 上古漢語 음운으로 바꾸어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06. 資 ʔsli

至 tjigs¹²⁾

202. 踐 zlenʔ

善 djenʔ <gj

285. 酬 dju

酒 ʔsluʔ//sl'uʔ

周 tjuw

11) 李方桂의 *TS에 l을 첨가한 *tsl-, *tshl-, *dzl-과 같은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鄭張尙芳의 *sl-의 구조를 채택한다.

12) 《禮記·緇衣》의 “겨울이 오면 몹시 춥다.(資冬祁寒.)”의 ‘資’에 대하여 鄭玄은 다음과 같이注를 가하였다.

“資는 마땅히 ‘至’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齊와 魯의 말로 잘못된 음이다.(資當爲至, 齊魯之語, 聲之誤也.)”(《鄭玄辭典》 참조)

위의 언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동부 방언에서 ‘至’가 구개화되었다. 둘째, ‘資’의 l이 다른 지역의 방언에서는 탈락되었으나 동부 방언에서는 유지되고 있어 ‘至’와의 접촉이 가능했다.

303. 詛 ?sras	祝 tjugs	沮 ?sas
409. 適 theg, hljeg	責 ?sreeg	

위의 재구음에 근거하면 유음 l 혹은 r이 T 組와 교체하는데 이들 유음과 T 組의 조음 부위가 근접하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精組와 章組의 접촉이 반드시 章組의 구개화를 나타내는 증거라 단정할 수 없다.

《釋名》에서 章組가 갖는 접촉의 예를 章母와 접촉하는 성모류별로 고찰해 본다.

먼저 章組의 파찰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본다.

(1) 精組와의 접촉례

502. 洲 tju	聚 zlo? ¹³⁾
691. 靜 zleŋ?	整 tjeŋ?
722. 終 tjuŋ	盡 zlin?, ?slin?
789. 繼 sled	制 kjeds

위에서 789조를 일견하면 두 글자 간에 어떠한 공통적 음소(phoneme)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접촉이 구개화 이후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制’ 해성족¹⁴⁾은 다음과 같이 치경 폐쇄음과 通假한다.

먼저 ‘制’는 章母의 ‘顛’ *tjon과 통가하는데, 《禮記·王制》의 “凡制五刑.”에 대하여 《孔子家語·刑政》에서는 ‘制’를 ‘顛’으로 적고 있다.

둘째, ‘愾’는 ‘怛’ *taad과 동일 글자라는 것이다. 즉 《詩經·檜風·匪風》 “中心怛兮.”에 대하여, 《韓詩外傳》에서는 ‘怛’을 ‘愾’로 적고 있으며 《漢書·王吉傳》의 “忠愾兮.”에 대하여 顏師古는 “愾, 古怛字.”로 注하였다.

그러므로 ‘制’ 해성족의 일부 글자는 치경 폐쇄음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 주는 모종의 음소가 있었을 것이다. 가장 가능한 선택은 유음 l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制’의 上古漢語를 복성모인 *kljeds로 수정한다.

13) 서면 티베트어에서 ‘聚’는 sdu이므로 漢語에서 l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14) 이 해성족에는 見母의 ‘獬’가 존재하므로 ‘制’의 기본 자음은 k가 된다.

(2) 邪母와의 접촉례

319. 屬 djog	續 ljog
425. 耜 ljwʔ	齒 thjwʔ < khj
510. 袖 ljwʷgs	受 diuʔ
624. 祥 lianj	善 djenʔ < gj
709. 媵 luŋs	承 gljuŋ
1144. 順 gljuns	循 ljun

(3) 以母와의 접촉례

109. 署 djas	予 laʔ
916. 痍 lii	侈 lhjalʔ
1017. 鋌 hlijan > dj	延 lan
1018. 善 djenʔ < gj	演 lenʔ

(4) 莊組와의 접촉례

480. 爪 ʔsruuʔ	紹 djewʔ
---------------	---------

(1)의 경우는 바로 Coblin이 章組의 구개화가 완성된 증거라 들었던 예들이다. 그러나 精組의 파찰음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음 l과 치경 폐쇄음 간의 교체에 의한 접촉일 수도 있고 l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 접촉일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결정적 단서도 제공하지 못한다.

(2)의 경우는 邪母와의 접촉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邪母가 中古漢語의 형태인 zj-로 변화한 이후의 반영이다. 章組가 이 상태의 邪母와 교체하려면 구개화가 완성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章組와 邪母는 각각 파찰음과 마찰음이 되어 [+지속(continuant)] 자질을 공유하게 된다.

둘째, 邪母가 *lj-로 남아 있어 章組 역시 치경 폐쇄음으로 남아 있어 유음과 치경 폐쇄음 간의 교체가 된다.

(3)의 경우는 以母와의 접촉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以母가 $z-$, $z-$ 혹은 $ʃ-^{15)}$ 로 변화했다고 가정하면 이와 접촉하는 章組 역시 구개음화가 되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속(continuant)] 자질을 공유하므로 가능한 접촉이다.

둘째, 以母의 변화 이전을 반영한 것으로 유음과 유음 혹은 유음과 치경 폐쇄음 간의 접촉이다.

(4)의 경우는 莊組와 접촉하는 예인데 章組와 莊組가 모두 파찰음으로 변화한 이후의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 상태인 d 와 r 의 교체일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접촉은 각각의 두 組의 聲母가 어떠한 상태이든 가능하므로 章·昌·禪母의 구개화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는 章·昌·禪母가 구개화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1) 다음과 같이 폐쇄음과 접촉하는 예가 상당수이다.

15. 騎 grals	支 kje
110. 諸 tjaa	儲 da
212. 屐 greg	楮 klje ¹⁶⁾
217. 石 djag	格 kraag ¹⁷⁾
218. 赤 khljag	赫 qhraag
412. 蚩 thju	癡 ghí'w / t-ghw
488. 仇 gu	讐 giu
494. 肘 tu? ^{<t-ku?/kl'u?18)}	注 tjos

15) 以母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경과하여 中古漢語에서 영성모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 과정은 본 논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16) 見組의 '楮·耆·齧·鯨·鬻' 등과 해석하는 경우로 이에 의거 '楮'는 *kl-로 재구된다.

17) 任繼昉(2006 : 56)은 格이 '咯'(*graag)과 통하며 '落'(*graag)로 읽는다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格'을 2등운으로 간주하여 후치음 r 을 가진 것으로 상정한다. 이들은 d 와 r 의 교체이다.

18) '肘'의 친족어는 K류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의 친족어의 동원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서면 티베트어에서는 gru-mo, 錯那門巴어에서는 krum³⁵eu⁵³, Gyarong어에서는 tə kru, 達讓僜語에서는 la⁵⁵ku⁵³이다. '팔뚝'의 의미를 갖는 경우, 서면 티베트어에서는 khru(gap)이고 Gyarong어에서는 kru gam이다(黃布凡 主編 1992).

501. 壽 dju?	久 kwɿu? ¹⁹⁾
715. 冬 tuug	終 tjung
753. 冢 ton?	腫 tjon?
784. 袂 mgweds	掣 khljeds, khljed ²⁰⁾
793. 拙 kljod	屈 klud
829. 出 khljud ²¹⁾	推 thuul
888. 團 djol	團 doon
952. 水 qhʷji?	準 qʷjin?, qʷjed
963. 耨 gri	指 kji?
1040. 喘 thjon?	湍 thoon
1105. 坤 khuun	順 gljuns
1140. 膊 tjon, djon	團 doon

中古漢語의 章組 파찰음인 Tj-류는 치경 폐쇄음이나 유음 l과 교체하고 있으며 드물게는 r과도 교체하고 있다. 또 K(l)j-는 見組나 影組와 교체하고 있으며, 829조와 같이 l을 동반한 경우는 t와 교체하고 있다. 이상의 예는 章組가 구개화했다면 불가능한 접촉이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33. 吹(籥) khjol 推 thuul

먼저, '吹'를 *kh-류로 재구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첫째, '吹'와 동일 해성인 ㄷ는 後起字로 曉母이므로 見組와 교체가 가능하다. 둘째, 《說文》에서는 “吹, 嘘也.” 또 “歇(响), 吹也.”라 하고 있다. '吹'와 접촉하고 있는 글자는 모두 曉母이다. 따라서 *kh-가 기본 자음으로 재구된 점은 문제가 없다. 그러

19) 以母인 '差'가 '久'와 함께 동일 해성족에 속해 있고 '久'는 以母의 '悠'와 동원인 점으로(潘悟雲 2000: 281) 미루어 l을 동반한 복성모 글자이었을 것이다.

20) 이 접촉은 '掣'가 구개화되지 않고, '袂'에 g가 탈락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증명한다. 한편 '掣'에 대한 鄭張尙芳의 재구음에서는 [i] 없으나 앞의 논의에서 '制' 해성족에 l을 첨가한 것에 근거하면 '掣'가 *kh-l-일 가능성이 크므로 수정한다.

21) 동일 해성족에 見組의 '屈'이 있고, 獨龍語의 동원사는 klɬt으로(潘悟雲 2000: 148) 설근음 계열이다.

나 '吹'는 구개화 여부와 상관없이 鄭張尚芳의 재구음으로는 '推'와의 관련을 찾을 수 없다. '推'와의 관련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다른 언어의 동원사에 있다. '吹'의 Khmer語의 동원사가 'flute'의 의미를 가진 khloy로 추정되는데 (Schuessler 2007: 196 참고) 이에 의거 '吹'를 *khjol로 수정하면 '吹'와 '推'는 l과 t의 교체로 인한 접촉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吹'의 구개화와는 관계없다.

또 다음의 접촉을 살펴보자.

361. 是 dje?

嗜 gjis

두 글자 모두 禪母인데 위의 표기에 의한 d와 g의 교체에 의한 聲訓은 성립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禪母가 中古漢語에 가까운 파찰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절의 결론에 의거하면 禪母의 구개화는 《釋名》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嗜'에 후치음 l이 있었다는 것이다. '嗜²²⁾'의 서면티베트어 동원사는 gri이고(黃布凡 1992), '嗜'의 서면 티베트어 동원사는 grjid이므로(全廣鎮 1996: 138) '嗜'가 l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옳다면 이 두 글자는 d와 l의 교체에 의한 聲訓이 된다.

章組가 치경 폐쇄음과 접촉하는 예는, Coblin이 언급한 바와 같은 '옛 音讀의 답습'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많다.

2) 파찰음화 한 精組와 구개화, 즉 파찰음화 한 章·昌·禪母는 조음부위가 같지 않다. 전자의 조음부위는 치간(interdental) 혹은 치간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경구개이다.

3) 鄭玄의 《儀禮·既夕禮》의 '車'에 대한 다음의 注로부터 章組 파찰음이

22) 서면 티베트어의 bgre과 동원인 것 같다.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운구차를 《周禮》에서는 ‘蜃車’라 하고 《雜記》에서는 ‘團’이라 하며, ‘輓’이라 적기도 하고 ‘搏’이라 적기도 했는데 음성이 서로 가까울 뿐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 듣지 못했다. (載柝車周禮謂之蜃車, 雜記謂之團, 或作輓, 或作搏, 聲讀皆相附耳, 未聞孰正.)

여기에서 관건은 ‘蜃·團·輓·搏’의 네 글자의 성모이다. 鄭張尙芳의 재구 음에 의하면, ‘蜃’과 ‘輓’은 각각 *djuuns와 *djon으로 中古漢語의 禪母에 속하고 ‘團’과 ‘搏’은 모두 *doon으로 中古漢語의 定母에 속한다. 위와 같은 언급은 鄭玄이 인지하고 있는 언어에서 두 聲母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禪母가 구개화되었다면 이와 같은 언급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부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鄭玄의 언어²³⁾와 《釋名》에서, 章組의 구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章組와 精組의 접촉은 치경 폐쇄음 T류와, 동부 방언에 상당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精組의 유음 l 간의 접촉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釋名》에서 章組가 아직 과찰음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Coblin이 《釋名》이 옛 音讀과 당시의 동부 방언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 점 즉 다중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한 점과는 상반된 것이다.

3.2 書母·以母·邪母·船母의 변화 여부

이 절에서는 書母·以母·邪母·船母의 변화 여부, 즉 l의 변화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 각 성모는 대략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과하여 中古漢語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²⁴⁾.

23) 鄭玄이 동부 방언을 반영하고 있음은 汪啓明(1998)에도 언급되어 있다.

- 書母: *hlj- > hj- > [中古漢語] ɕj-
 船母: *hlj- > h̥j- > [中古漢語] zj-²⁵⁾
 以母: *l- > {z-, z- 혹은 ʎ-} > [中古漢語] Øj-
 邪母: *lj- > [中古漢語] zj-

본 절에서는 書母와 船母에 대해서는 l의 탈락 여부와 아울러 구개화 여부를 논의한다. 以母는 l의 변화와 탈락 여부, 邪母는 l의 마찰음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書母에서 l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Coblin(1983: 56)은 書母의 경우, 鄭玄, 應劭, 《釋名》 등 동부 방언을 나타낸다고 주장된 자료에서 精組와 접촉하므로 書母를 구개화된 *s-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에 《釋名》에 출현하는 書母와 精組의 접촉례를 鄭張尙芳의 재구음으로 표기하여 고찰하면 이와 같은 주장에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8. 朔 sgraag > oog	始 hljwʔ
282. 叔 hljuwg	蹶 ?sluwg
323. 束 hljog	促 shog
418. 始 hljwʔ	息 slwg
562. 燒 hɲjew, hɲjaws	焦 ?sew
818. 膝 sig	伸 hlin

- 24) 書母·船母·以母에 대한 上古漢語와 中古漢語 사이의 재구음은 본 논문의 추정이다. 書母와 船母의 l이 탈락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l 앞의 h와 h̥는 j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구개화보다 l의 탈락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l의 탈락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 제시할 수 없다.
- 25) Karlgren(1915-1926)이 韻圖의 배치를 근거로 中古漢語의 船母가 파찰음(dzj-에 해당)으로 재구하였고 禪母를 마찰음(zj-에 해당)으로 재구한 이래 한동안 이를 정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陸志韋(1939), Pulleyblank(1962-3), 邵榮芬(1982)는, 韻圖에서 船母와 禪母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禪母는 dz-, 船母는 z-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견해에 동의한다.

위의 예 가운데 188, 282, 418조는 두 대응하는 聲母類 모두 l을 동반하고 있어 書母의 구개화가 진행되었다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282조는 동일 해성족에서도 書母와 精組의 접촉이 가능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323조, 562조, 818조는 h와 s 간의 교체로 동일 해성족이나 동원 관계에서도 가능한 교체가 다²⁶⁾. 이에 따라 書母의 구개화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한다.

《釋名》에서 아래의 몇 가지 접촉례는 書母의 l이 탈락하지 않았으며 l이 h의 구개화를 저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구개화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1) 端組나 知組와의 접촉례

113. 書 hlja	著 tas
703. 登 tuuŋ	陞 hljuŋ
758. 春 hljon	撞 rdoon
842. 兌 l'oods	說 hljods, hljod, lod

위와 같이 書母가 端組나 知組와 교체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동일 해성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²⁷⁾이다. 書母의 l이 탈락하였다면 이 같은 접촉은 있을 수 없다.

(2) 中古漢語의 章組 파찰음과의 접촉례²⁸⁾

48. 車 khlja	舍 hljaa?
114. 晷 hlja?	煮 tja?
255. 識 hljug	幟 tjugs
336. 庶 hljags	撫 tjaag

26) s와 h 간의 교체가 가능함에 대해서는 鄭張尙芳(2003: 141-142)을 참조하시오.

27) 예를 들면 '兌'족, '庶'족, '宰'족 등에는 知組나 端組의 폐쇄음과 書母가 속해 있다.

28) 3.1에서 이미 章組가 구개화하지 않았음을 논증한 바 있다. 이를 근거하면 章組와의 접촉 역시 書母가 구개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10. 齒 thjw? < khj	始 hljw?
417. 詩 hljw	之 tjw
1124. 辰 djwŋ	伸 hlin
1183. 執 tjib	攝 snjeb

48조의 접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釋名》에서 “車는 옛날에 ‘居’와 같이 읽었는데 다니면서 ‘사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였다. 현재 ‘車’는 ‘舍’이다.(車, 古者曰車, 聲如居, 言行所以居人也. 今曰車, 車, 舍也.)”라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舍’에 가까운 ‘車’의 음은 *kla(聲如居)가 아닌 中古漢語의 昌母인 *khlja로 昌母(章組)가 《釋名》에서 구개화하지 않았음은 3.1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1183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서 1이 그 자신 또는 t나 d와 교체하지만 1183조는 다음의 접촉례를 들어 설명한다.

36. 瓦 ŋwraal?	蹠 grool?
37. 瓦 ŋwraal?	裸 grool?
41. 雅 ŋraa?	雛 g-raag
145. 撫 mha?	敷 pha
786. 藁 ŋred	缺 khwed, khweed
991. 漣 baan	漫 moons
1007. 鞣 hgeen?	經 keeg
1050. 言 ŋan	宣 sqhon
1197. 儻 taam < ?'aam	任 njwŋ, njwŋs
1244. 裱 njwŋs	襜 thjam, thjams

36조, 37조, 41조, 786조, 1007조, 1050조는 비음 ŋ과 見組나 影組의 폐쇄음과의 접촉이며, 1197조와 1244조는 비음 n과 치경 폐쇄음과의 접촉이고 145조, 991조의 경우는 비음 m과 幫組 폐쇄음과의 접촉이다. 따라서 1183조 역시 n과 t의 교체로 인한 접촉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최소한 구개화가 되었다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이다.

(3) 기타

50. 鳴 qaa	舒 hja
61. 庫 khaas	舍 hjaas (齊魯 방언)
681. 輕 kheng	勝 hljuŋ (齊魯 방언)

위의 예는 見組나 影組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래와 같은 설명을 요한다.

50조에 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Bodman(1954: 56)이 주장한 바와 같이, 齊 방언과 관계있을 것으로 '鳴'가 1을 동반한 복성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둘째, '鳴'가 단순 성모인 경우이다. 즉 조음 부위가 유사한 두 喉音 q와 h의 단순 교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舒'가 구개화했다고 가정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떠한 경우든지 '鳴'와 접촉할 수 없으므로 '舒'는 구개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61조의 '庫'에 대하여 《釋名》은 “庫는 '집'이다. 물건을 두는 집이다. 그러므로 齊와 魯에서는 '庫'를 '舍'라 한다.(庫, 舍也. 物所在之舍也, 故齊魯謂庫曰舍也.)”와 같이 언급하였다. Bodman(1954: 57)은 '庫'가 齊와 魯 지역에서 모종의 구개화 음인 ʃ(ɕ에 해당)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庫'는 1등운이므로 구개화와는 관계없다. 이 접촉이 가능하려면 '庫'가 齊와 魯 지역에서는 1을 동반했어야 한다. 위의 48조의 '車'에 1을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해성측에 속한 '庫'는, 당시의 표준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1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庫'의 동부 지역이 음을 *khlaas로 재구한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以母에 대한 논의해서 다룰 682조에서는, 齊방언에서 以母인 '榷' *leŋ을 '輕'으로 읽는다 하였는데 이는 齊방언에서 '輕'이 1을 동반한 *khleŋ로 재구해야 하는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와 같다면 681조의 '輕'과 '勝'은 음운 1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이 가능하다.

위의 접촉례에서 50조가 書母의 h와 影母의 q의 교체일 가능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가시적으로 書母가 見組와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실상은 1을 공유

함으로써 성립된 접촉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釋名》의 書母의 1가 탈락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개화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以母에 대한 논의이다.

Coblin(1983: 60-62)은 東漢 시기의 以母를 각 학자가 반영하고 있는 방언을 세 지역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鄭衆, 服虔, 應劭에서 東漢의 치경 폐쇄음(章組 포함)과 접촉하므로 以母를 *r-로 재구하였다²⁹⁾. 아래에 鄭張尙芳의 재구음과 함께 그 접촉례를 제시하였다.

鄭衆

132. 純 tjun? 緣 lon

服虔

43. 雉 i'i? 夷 ɥ
81. 陆 lem 坩 tiims tim
98. 怵 lhud 裔 leds

應劭

121. 夷 ɥ 觥 tiil?

둘째,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鄭玄과 《釋名》에서는 以母가 치찰음인 心母, 邪母나 구개화된 章組인 禪母와 접촉하므로 以母는 구개화된 *z-(z에 해당)로 재구되어야 한다는 Bodman(1954: 31-33)의 견해와 동일하다.

셋째, 《說文》과 高誘의 音訓에서는 以母가 精組와 접촉하지만 구개화된 聲母와 접촉이 없으므로 이들이 반영한 방언에서는 以母를 *z-로 재구하였다.

29) 이는 鄭張尙芳의 *l-에 해당한다.

위에서 든 鄭衆, 服虔, 應劭의 경우는 先秦漢語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둘째 류와 셋째 류에서 Coblin이 제시한 접촉례 가운데에는 각자의 독특한 방언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래에 그가 제시한 접촉례를 鄭張尙芳의 재구음과 함께 열거하였다.

鄭玄

34. 修 sluw ³⁰⁾	卣 lu
71. 豫 las	榭 ljaags
111. 遺 lul	隨 ljol
117. 肆 hljwds	肆 lids
326. 夷 lil	尸 hli
341. 鑄 loŋ	頌 sglongs
342. 頌 sglongs	容 loŋ
410. 錫 sleeg	易 leegs

《說文》

387. 像 ljaŋ?	養 laŋ?
1018. 庠 ljaŋ	養 laŋ?
1023. 羊 laŋ	祥 ljaŋ

Coblin에 의하면 鄭玄과 《說文》은 각각 다른 방언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위에서 鄭玄의 34조, 117조, 326조를 제외하면 모두 以母와 邪母 간의 접촉인데 이는 동일 해성족 내에서도 교체가 가능한 성모들이다. 더구나 鄭玄의 117조와 410조, 《說文》의 387조와 1018조는 동일 해성족에 속한 글자 간의 접촉이다. 따라서 이들은 上古漢語 중기, 즉 先秦漢語에서도 가능한 접촉이므로 以母가 *z-나 *z'-로 재구되는 각 방언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근거로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以母의 음에 대한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30) '修'는 心母로 동일 해성족 내에 '悠·攸·滌' 등의 以母 글자가 있으므로 '修'는 *sl-로 재구된다.

먼저 《釋名》에서 以母와 精組가 접촉하는 예를 살펴보자.

34. 髓 slolʔ ³¹⁾	澆 lulʔ
234. 錫 sleeg	易 leegs ³²⁾
511. 酒 ʔsluʔ/sl'uʔ	酉 luʔ ³³⁾
515. 酉 luʔ	秀 slus ³⁴⁾
759. 頌 sglongs ³⁵⁾	容 loŋ
1090. 進 ʔslins ³⁶⁾	引 linʔ
1239. 淫 lun	浸 ʔsims. shim

Coblin은 이를 근거로 以母가 마찰음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1239조를 제외하면 以母와 접촉하는 精組의 글자 모두 鄭張尙芳의 1을 동반한 글자들이다. 특히 234조와 511조는 동일 해성족 간의 접촉례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접촉이 구개화 이전의 先秦漢語의 음의 반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촉이 以母의 재구음이 어떠한 양상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은 鄭玄의 예와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는 《釋名》의 以母가 *l-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1) 以母는 다음과 같이 端組나 知組 등의 치경 폐쇄음과 접촉하고 있다.

682. 檻 leŋ	亭 deen
------------	--------

31) 諧聲에서 '隋'족은 '墮·墮(*lhoolʔ), '墮·惰(*'l'oolʔ)과 같은 端組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해성족에 속한 精組는 *l-을 동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두 글자가 동일 해성족에 속하므로 精組는 1을 동반한다.

33) 두 글자가 동일 해성족에 속하므로 精組는 1을 동반한다.

34) 諧聲에서 '秀'족은 '透(*lhoos)등의 端組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해성족에 속한 精組는 1을 동반한다.

35) 諧聲에서 '頌'은 邪母 글자이므로 1을 동반한다.

36) 《說文》에서는 '進'이 '闕省聲'이라 했는데 '闕'은 *rins로 來母이다. '進'이 來母와 通諧하므로 유음 1이 기본 자음이 된다.

751. 涌 loŋʔ	桶 l'hoongʔ
843. 兌 l'oods	兌 lod ('悅' 初文) ³⁷⁾
915. 姨 ɮ	弟 dills

특히 751과 843조는 동일 해성족 안에서의 접촉의 예이다. 만약 以母에서 1이 탈락했거나 다른 음으로 변화했다고 가정하면 以母와 치경 폐쇄음 간의 접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682조의 '榿'과 '亭'의 접촉은 다른 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준어의 반영으로 보이는데 682조 아래에서 劉熙는 “榿... ..齊魯讀曰輕.”이라 하여 '榿'이 齊와 魯의 동부 지역에서 '輕'으로 읽혔음을 언급하였다.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劉熙가 인지한 '輕'의 동부 지역의 음은 *khlen이고 以母의 '榿'은 *l-이어야 한다.

3) 3.1에서 以母가 先秦의 모습을 보존한 章組와 접촉하는 예를 들었다. 이미 章組가 치경 폐쇄음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이것과 접촉하는 以母 역시 1 성분을 보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釋名》의 以母를 *l-로 재구한다.

邪母 역시 폐쇄음으로 보존된 章組와 접촉하고 있으며(3.1에서 제시) 본 절에서 1을 동반한 것으로 재구된 書母, 以母와 다음과 같이 접촉하므로 1을 동반한 음으로 재구해야 한다.

(1) 書母와의 접촉례

115. 徐 lja	舒 hlja
219. 席 ljaag	釋 hljag

37) Coblin(1983: 197 注)에서 이 두 글자 간의 성모 대응은 불규칙한 것으로 더 이른 시기의 《易經》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글자는 동일 해성족에 속한 것으로 불규칙한 대응이 될 수 없다.

(2) 以母와의 접촉례

324. 俗 ljog	欲 log
509. 袖 ljuwgs	由 luw
584. 餉 ljaag	洋 ljaŋ, laŋ
629. 羊 laŋ	祥 liaŋ

115조, 509조, 629조는 동일 해성족 안에서의 접촉인데 邪母가 以母나 書母와 교체하는 현상은 동일 해성족 안에서도 자주 보인다. 앞선 논의를 통하여 以母와 書母 모두 l이 탈락하거나 변화하지 않았음에 근거하면 邪母은 *lj-로 재구한다.

船母도 先秦漢語의 모습을 보존한 성모들과 다음과 같이 접촉하고 있다.

(1) 禪母와의 접촉례

254. 食 hljuŋ	殖 djuŋ
--------------	--------

(2) 書母와의 접촉례

712. 乘 hljuŋ	陸 hljuŋ
795. 說 hljods, hljod, lod	述 hljud
817. 室 hlig	實 hlig

(3) 以母와의 접촉례

787. 舌 hljed < hbli	泄 lebs
1141. 脣 hljun	緣 lon
871. 諡 gligs	曳 led

(4) 邪母와의 접촉례

116. 序 [敘] lia?	杼 hlja?
-----------------	---------

(5) 端組·知組와의 접촉례

405. 痔 dwʔ	食 fljwg
811. 經 dlīg	實 flīg
1143. 盾 fljʉnʔ	遯 duunʔ

1143조는 보충 설명이 요망된다.

‘盾’은 《廣韻》에서 두 개의 독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準韻의 ‘食尹切(船母)’로 ‘방패(干盾也)’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混韻의 ‘徒損切(定母)’로 인명에 사용되는데 이 경우 ‘盾’은 *lʉunʔ으로 재구된다. ‘피하다, 도망치다’의 의미를 가진 ‘遯’은 ‘盾’에서 ‘방패’의 의미를 가진 船母와 통한다. 따라서 1143 조는 船母와 定母가 교체하는 예라 할 수 있다.

(6) 기타

813. 吉 klid	實 flīg
827. 筆 prud	述 fljud

827조는 r과 l의 교체인데 船母가 구개화했다면 이 접촉은 불가능하다. 813 조는 l을 공유하고 있으며 船母가 구개화했다면 불가능한 접촉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章組, 書母, 以母, 邪母가 《釋名》에서 l 성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과 접촉하는 船母 역시 l을 동반했어야 한다. 따라서 《釋名》의 船母는 *flj-로 재구되어 先秦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3.3 복성모의 증거

본 절에서는 《釋名》의 접촉을 통하여 당시에 존재했던 복성모의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은 2.에서 소개한 구조를 근거로 복성모를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한

다. 다만 후치음 가운데 j와 w는 자음의 성격과 다소 다르므로 이 음소를 포함한 성모는 본 절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전치음식 복성모 구조 가운데 《釋名》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찾아본다.

3.1의 논의를 통하여 章組와 접촉하는 精組의 일부가 이 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精組에 이 유형에 속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3.1에서 논의된 것 이외의 예를 아래에 제시한다.

449. 丘 kh ^w u	聚 zlo?
498. 柳 mru?	聚 zlo?
670. 聽 lheen	靜 zlen?

498조의 ‘聚’의 서면 티베트어에서의 동원사는 sdu이다(Bodman 1969). 鄭張尙芳은 이에 근거하여 ‘聚’를 *zl-로 재구하였다. 이러한 전제라면 498조는 r과 l의 교체가 된다. 한편 449조에서는 ‘丘’와 접촉하는데 鄭張尙芳의 재구음으로는 어떠한 공통적인 음소를 발견할 수 없다. ‘丘’의 음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없는지 살펴보자.

《方言》 제 13권 ‘冢’ 조목 아래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冢’... .. 관동 지역에서는 ‘丘’라 부르는데 작은 것은 ‘塋’라 하고 큰 것은 ‘丘’라 한다.(冢... ..自關而東謂之丘, 小者謂之塋, 大者謂之丘.)

또 《廣雅·釋丘》에서는 “작은 언덕을 ‘丘’라 한다.(小陵曰丘.)”(王力 1982: 85)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하여 ‘塋’와 ‘丘’가 동원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塋’(*roo)는 上古漢語의 侯部에 속해 있고 來母의 글자로 ‘丘’와 동원 관계가 성립하려면 ‘丘’에 유음 성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丘’를 *khl-로 수정한다³⁸⁾. 이 가정이 옳다면 ‘丘’와 ‘聚’의 접촉은 유음 l 성분을 공유함으로써 성립된다.

670조의 접촉은 ‘靜’에 l이 남아 있어 ‘柳’의 r과 교체하는 예이다. 그러나 ‘聽’

38) 이 글자는, k가 기본 자음이고 l이 후치음인 후치음식 구조에 속한다.

이 *lh->t-와 같이 폐쇄음으로 변화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h나 s의 전치음을 가지고 있는 전치음식 유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먼저 복성모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예를 살펴보자.

377. 醞 qhwwʔ	晦 hmwws ³⁹⁾
390. 晦 hmwws	灰 hmww ⁴⁰⁾
507. 手 hnjuwʔ	須 so
532. 操 shaaw	鈔 smhreew
562. 燒 hɲjew, hɲjaws	焦 ʔsew
567. 笑 sqhow/s	鈔 smhreew
1114. 婚 hmwwn	昏 hmwwn

이들은 上古漢語에서 모두 *hm- *sm-의 구조인데 248조, 390조와 1114조는 h(m)와 h(m) 간의 교체로 비음인 m의 탈락 여부는 알 수 없다. 377조는 m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qh와 h의 교체가 되므로 역시 '晦'에서 m의 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507조에서 '手'가 복성모인 *hn-에서 n의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須'와는 h와 s의 교체로 간주되므로 '手'가 복성모이었던지 명확하지 않다. 532조와 567조의 '鈔'는 中古漢語에서 初母인데 m의 탈락 이후에 中古漢語 단계로 진입한다. 이 접촉으로도 m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567조의 '笑' 역시 기본 자음인 qh의 탈락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예는 전치음식 가운데 'h+비음'의 유형이 보존된 증거들이다⁴¹⁾.

9. 馱 ŋʷaals 化 hŋʷraal/s⁴²⁾

39) 해성에서 '母' → '每' → '晦'로 파생되므로 聲母는 *hm-이 된다.

40) 동일 해성족에 明母인 '灰'가 있어 聲母는 *hm-이 된다.

41) 'h+비음' 유형은 中古漢語에서 曉母에 속하는데 이들은 전치음 h가 기본자음인 비음을 흡수하여 影組에 속하게 되는 예이다(鄭張尙芳 2003: 144 참조).

42) 동일 해성족에 疑母 '訛·吡'가 있으므로 *hŋ-로 재구한다.

147. 庶 maʔ	撫 hmaa
247. 墨 mluuŋ	晦 hmuuŋ
248. 黑 hmluuŋ	晦 hmuuŋ
441. 黼 mrwu	晦 hmuuŋ
1007. 鞞 hŋeenʔ	經 keeŋ

위의 예에서 h 뒤의 비음이 탈락했다고 가정하면, 접촉하고 있는 글자와 음소를 공유할 여지가 없게 된다.

248조의 경우 黑 *hmluuŋ와 晦 *hmuuŋ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晦’는 中古漢語에서 撮口에 속하는데 m이 撮口 개음 w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鄭張尙芳(2003: 144 참조)에 의하면 ‘黑’은 開口의 글자로 l이 *m>w의 변화를 저지했기 때문에 m이 개음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일정 시기에 탈락한다⁴³⁾. 《釋名》의 접촉에서 일반적으로 開口와 撮口가 분리되어 접촉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248조의 접촉은 ‘晦’에서 *m>w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247조와 441조를 통해 ‘晦’은 m을 동반한 복성모로 간주된다.

1007조는 3.2에서 언급한 바 있는 비음 ŋ과 폐쇄음 k간의 교체의 예이다. ‘鞞’가 曉母이므로 h는 탈락해서는 안 되는 음소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聲母는 *hŋ-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昏’에서 *m>w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1115. 昏 hmuuŋ	損 sŋuunʔ
---------------	----------

1115조는 h와 s의 교체이다. 中古漢語에서 두 글자 모두 撮口에 속하므로 《釋名》에서의 교체 상황으로 볼 때⁴⁴⁾ ‘昏’의 上古漢語에서의 m이 w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昏’은 이미 단순 聲母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s+기본자음’ 유형의 전치음식 형태의 접촉례이다.

www.kci.go.kr

43) ‘黑’에서 m>w가 저지된 점으로 보아 m이 있었다면 l은 보존되었을 것이다.

44) 대부분 開口는 開口와 撮口는 撮口와 접촉한다.

572. 眇 mewʔ	小 smewʔ ⁴⁵⁾
856. 歲 sqh ^w ads	越 g ^w aad
864. 細 snuuls ⁴⁶⁾	弭 mniʔ
1170. 鑷 neb	攝 snjeb

위는 전치음 s 뒤에 기본 자음이 있어야 가능한 접촉이다. 특히 864조의 경우 두 글자가 공통적으로 n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접촉이다. 한편 '弭'가 明母에 속하므로 m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弭'는 *mn-의 전치음식 구조의 복성모이다.

1170조는 n을 공유함으로써 접촉하는 경우이다. '攝'은 多音字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독음을 가지고 있다.

(1) 《廣韻》의 葉韻에 속하며, 書母의 '書涉切'로 '겸하다, 취하다(兼也, 錄也)'의 의미이다.

(2) 《廣韻》의 怙韻에 속하며 泥母의 '奴協切'로 '두려워하는 모양(攝然)'의 의미이다.

'鑷'은 《廣韻》에서 葉韻에 속하며 '尼輒切'로 '집게(鑷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攝'의 書母의 의미인 '잡다'와 통한다. 따라서 1170조의 '攝'은 *sn-으로 s와 n가 모두 보존되어 있는 복성모 글자이다.

다음은 gr, br 형태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일부 來母 글자 앞에 다른 자음 성분인 전치음을 동반하는 경우 그 전치음은 탈락한다. 예를 들면 설근음과 諧聲하는 '路'는 g가 탈락함으로써 來母가 된다. 반면 重紐 3등의 표지인 r이 설근음 g가 결합하여 中古漢語에서 群母가 될 때

45) 동일 해성족에 明母의 '秒'가 있어 '小'의 聲母는 *sm-이 된다.

46) 鄭張尙芳(2003: 142)은 上古漢語에서 '細'에 n 성분이 존재했던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說文》에서 동일 해성족에 속한 '思'는 囟聲인데 '農' 역시 囟聲이다. 따라서 '囟'에 n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친족어나 차용어도 '思'에 n 성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思'는 태국어의 nwk(생각하다), 서면 버마어의 hnac<hnik(생각), 서면 티베트어의 snjij(마음, 정신)과 관계있다.

에 g는 탈락하지 않는다. 來母와 群母의 경우를 구별하기 위하여 來母 앞에 자음을 동반한 경우 보통 자음과 유음 r 사이에 ‘·’을 첨가하여 구별한다.

《釋名》에서 g·r이나 b·r을 동반한 來母가 참여하는 접측이 다수 있지만 g나 b의 탈락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존재가 명확함을 밝히는 접측의 예는 소수에 불과하다. 먼저 이들의 탈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예를 열거한다.

47. 寡 k ^w raa?	僕(=裸) g·rool?
78. 櫓 raa?	露 g·raags
79. 櫓 raa?	旅 g·ra?
93. 柸 ra?	旅 g·ra?
107. 廬 ra	盧 b·raa
108. 慮 ras	旅 g·ra?
149. 樓 g·roo	婁 g·roo
183. 酪 g·raag	澤 rlaag
331. 露 g·raags	慮 ras
332. 路 g·raags	露 g·raags
499. 柳 m·ru?	儻 g·roo, g·roos, g·ro?
601. 掠 g·raŋs	狼 raan
711. 陵 ruŋ	隆 g·ruuŋ
969. 瀾 g·raan	連 ren
988. 攀 b·roon	攀 b·ron
1003. 練 g·reens	爛 g·raans/?
1179. 立 rub	林 g·rum
1194. 攬 g·raam?	斂 g·ram?
1202. 廉 g·rem	斂 g·ram?
1203. 幪 g·rem	斂 g·ram?
1204. 鎌 g·rem	廉 g·rem
1230. 林 g·rum	森 srwm
1231. 痲 g·rum	懷 b·rum
1252. 廩 b·rum?	矜 grwm

위의 예에서 *g·r- 간의 접측이 많지만 r을 공통적 음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g가 없어도 가능한 접측이다. 그러므로 *g·r- 간의 접측이라 해도 *g·r-의 형태

가 보존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의 예는 *g-r-의 형태가 보존된 명확한 증거이다.

244. 勒 ruug	刻 khuug
459. 尻 khuu	膠 ruuw
1210. 劒 kams	斂 g-ram?

244조에서 ‘勒’은 서면 티베트어에서 khafgog이며 金文에서 ‘革’(*kruuug)으로 적기도 하였다(鄭張尙芳 2003: 399). 이에 따라 ‘勒’을 *g-ruuug로 수정하면 ‘刻’과의 접촉이 가능하다. 이는 ‘勒’의 g가 《釋名》에서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459조는 일견하면 두 글자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공통적 음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膠’의 해성족에는 ‘膠·嘍·鞣’ 등의 見組와 影組 글자가 존재하므로 ‘膠’가 g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釋名》에서 g가 없다면 ‘尻’와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膠’는 *g-ruuw로 수정한다.

1210조의 경우 ‘斂’에 g가 탈락했다면 불가능한 접촉이다.

이상과 같은 최소한 일부 글자에 g가 보존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이었는지, 또 b가 남아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래는 후치음식 복성모 구조이다.

莊組의 일부인 初·崇·生母가 이에 속한다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shr-, *zr-, *sr-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重紐 3등에 속한 幫組·見組·影組가 이에 속한다⁴⁷⁾.

3.1과 3.2에서 일부 설근음에 여전히 l이 동반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예를 들면 ‘制·輕·車(昌母)·庫’ 등은 이와 같은 후치음식 구조에 속한다. 이들 이외에 기존 재구음에 대한 수정과 함께 개별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후치음식 구조로 추정되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7) 重紐 3등이 개음 l과 관련이 있음은 기존의 각 논의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 | | |
|-----------------|--------|
| 101. 語 ɲaʔ, ɲas | 敍 ljaʔ |
| 685. 頷 reŋʔ | 頸 keŋʔ |

101조의 집축에 대하여 Bodman(1954: 61)은 '語'를 *ngiwo:<zng-로 '敍'를 *ziwo<dzng-로 재구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z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01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語'와 함께 동일 해성족에 속해 있는 '響'는 《廣韻》의 馬韻 '悉姐切'로 心母이다. 이를 근거로 '語'를 *zɲaʔ이나 *zɲas로 재구하여 '敍'가 마찰음으로 변화한 이후의 관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논증을 통하여 邪母가 l을 보존하고 있음을 3.2에서 확인했으므로 이 가능성은 부인된다.

다른 한 가지 가능한 상황은 '語'에 후치음 l이 존재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語'와 동일 해성족에 속해 있는 疑母인 '梧'는 禪母인 '颯'과 통가한다. 즉, 《荀子·勸學》의 '梧鼠'를 《大戴禮·勸學》에서는 '颯鼠'로 적고 있는데 '颯'은 '石'과 동음으로 *djag이다. '梧'와 '颯'은 上古漢語에서 각각 魚部和 鐸部に 속해 있어 통가가 가능하다. 두 글자의 관계로 보면 '梧'에 l 성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두 글자는 l과 d의 교체가 된다. 이를 유추하여 '語'에 l 성분이 동반된 것으로 가정하면 '語'와 '敍'가 l 성분을 공유한 것이 된다.

685조의 경우 鄭張尙芳의 재구음으로는 어떠한 공통적인 음소를 발견할 수 없으나 '頷'을 후치음 l을 동반한 *kl-로 재구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書母와 船母는 3.2의 논의를 통하여 각각 *hlj-와 *ɦlj-로 재구됨은 이미 논증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성모 l이 전치음 h나 ɦ와 결합하고 후치음 j를 동반한 혼합형 구조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집축을 통하여 몇 개의 개별 글자의 복성모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 | | |
|---------------|-------------|
| 709. 勝 lɯŋs | 承 gljuŋ |
| 759. 頤 sɣlɯŋs | 容 loŋ |
| 784. 袂 mgweds | 掣 khljed(s) |

871. 諭 gligs	曳 led
1144. 順 gljuns	循 ljun

784조의 '袂'에 *mg-가 갖추어져 있음은 3.1에서 확인하였으므로 '袂'는 m이 전치음인 전치음식 구조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유음 l을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복성모 글자들이다.

앞서 예를 든 709조, 871조, 1144조의 '承', '諡', '順'의 기본 자음 g나 g는 그 뒤의 유음 l에 의하여 구개화가 저지되었다 가정해야 한다. 이들은 후치음식 구조에 속한다. 759조의 '頌'은 邪母 글자인데 기본 자음 g가 탈락했다 가정하면 *sloggs이 되어 中古漢語에서 心母로 변화하게 되므로 g는 탈락하지 않았다. 이 글자는 전치음식과 후치음식의 혼합형 구조이다.

본 절의 논의를 통하여 《釋名》에 존재하고 있는 복성모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전치음식 구조: zl-, hN(비음)-, sC-, g-r-, mg-
- 2) 후치음식 구조: s(h)r-, zr-, Kr-(重紐 3등), Kl-, g(g)l-
- 3) 전치음식과 후치음식의 혼합형: h(h)lj-, sgl-

4. 聲母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釋名》의 언어학적 의의

본 논문의 논의를 통하여 《釋名》의 聲母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1) 章組와 精組의 접촉은 동부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鄭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釋名》도 동부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章組 파찰음과 교체하는 대다수의 精組에 후치음인 l이 있음은 3.1의 논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說文》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의 音讀에서 章組와 精組의 접촉이 없는 것은 精組의 ㄹ이 탈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說文》에서 見組가 치경 폐쇄음과 접촉하는 예가 있으므로 표준어에서 KI- 구조의 복성모가 존재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61조의 '庫'와 681조와 682조에서 언급한 '輕' 등은 동부 방언에서 후치음 ㄹ을 동반한 KI- 구조이다. 《釋名》에서 이들 몇 글자에 대하여 방언 지역을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볼 때 《說文》 등의 KI- 구조의 복성모 글자보다 동부 방언에서 수량적으로 더 많이 보존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표준어를 비롯한 타 지역의 음운에서 ㄹ이 탈락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3) 3.3의 논의를 통하여 적어도 일부 글자에 1)과 2)에서 언급한 유음 이외에도 다른 구조의 복성모도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釋名》이 당시의 실제 음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東漢의 실제 음운 현상을 알 게 해 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각종 문헌에 나타난 외국 지명과 인명 자료의 漢語 대역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東漢과 三國時代의 佛經 대역 자료는 상당수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가 크다. 佛經 대역 자료에 반영된 음운 현상은 《釋名》을 비롯한 東漢 시기의 音讀에 반영된 음운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章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된 원문과 대응하고 있다(Coblin 1983 참조).

安世高

5. 舍利 hljaas rids : 梵語 śāri

14. 舍利弗 hljaas rids puid : 梵語 śāriputra

26. 辟支 peg kie : 梵語 pratyeka, Pali pacceka

支婁迦讖

- 65. 釋迦文 hljag kraal mun : 梵語 śākyamuni
- 116. 首訶迦 hljus qhaal kraal : 梵語 śuddhāvāsa
- 146. 占蔔 tjems buuwg : 梵語 campaka

그러나 위와는 상반된 것으로 구개화 이전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아래에 몇 개를 열거한다(俞敏 1984).

遮 : tyā 舟 : tyu 禪 : dhyan

이들은 章組를 t, d 등의 원문을 대역할 때 사용한 경우로 先秦漢語의 모습에 가깝다.

다음과 같은 예는 佛經 대역에서 以母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이고 있다.

支婁迦讖

- 53. 梵迦夷 bloms kraal lil : 梵語 brahmakāyika
- 57. 三耶三佛 suum laa suum bud : 梵語 samyaksambud
- 62. 波耶和提 paal laa gool dee : 梵語 prajāpati

그러나 몇 개의 예는 이들과 상반되게 先秦漢語와 가까웠음을 반영한 것도 있다. 특히 ‘夷’는 tri와 dha를 대역하고 있어(俞敏 1984) 위에서 제시한 예와 다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佛經 대역 내에서의 혼란은 당시의 음운이 中古漢語에 가까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여 《釋名》의 현상과는 다르다. 佛經 대역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釋名》과 다른 특징은 《釋名》이 가지고 있는 복성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www.kci.go.kr

佛經 대역에 나타난 현실의 실제음과 비교할 때 《釋名》이 갖는 의미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釋名》의 음운은 東漢의 실제음이 아닌 문헌적 표준음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 《說文》 등의 다른 音讀이 반영하고 있는 음운보다 오히려 고음적인 요소가 조금은 더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고음적 요소가 보존되어 있는 동부 방언이 반영된 것이다.

3) 諧聲에서는 유음 l과 T 組와의 접촉이 드물다. 즉 l을 동반한 海성족의 端組나 知組는 일반적으로 폐쇄음이 아닌 *lh-, *l'- 등의 유음을 동반한 형태로 재구된다. 그러므로 《釋名》에서 유음과 폐쇄음의 접촉이 가능했던 것은 聲訓의 범위를 諧聲보다 폭 넓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劉熙는 실제 언어의 음운에 입각하여 저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雅音이나 通語라 불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자신의 방언도 반영하였으며 성모간의 접촉에서도 그 교체의 범위를 폐쇄음과 유음 간의 교체를 더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東漢 말 劉熙가 저술한 《釋名》의 聲母 현상 가운데 기존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분석을 하였다. 또 그것이 갖는 언어학적 의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章組가 精組와 접촉하는 것을 이유로 章組의 구개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精組와의 접촉이 구개화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으며 오히려 章組의 구개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章組와 빈번한 접촉하고 있는 以母와 邪母도 先秦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釋名》에 나타난 접촉으로는 복성모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일부 글자는 복성모로서의 先秦漢語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先秦漢語와 같이 전치음식, 후치음식, 전치음식과 후치음식의 혼합형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釋名》의 일부 聲母가 中古漢語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본 논문에서는 《釋名》이 반영하고 있는 聲母 체계가 이와는 반대로 당시의 문헌적 표준음에 기초를 두되 동부 방언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동시대의 다른 자료보다 先秦의 표준 漢語의 모습을 더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방법을 적용하여 동 시기의 다른 音讀 자료를 살펴보면 東漢 시기의 각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음운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본 논문에서 있을지 모르는 오류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參考文獻 >

< 원전 및 사전류 >

揚雄, 《方言》.

許慎(AD 121),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劉熙, 《釋名》.

郭璞 注, 《爾雅注》.

- 陸德明(589), 《經典釋文》(通志堂經解本), 山東友誼書社出版.
- 陳彭年 等(1008), 《宋本廣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影印.
《十三經注疏》.
- 段玉裁 注(1807),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影印.
- 向熹(1986), 《詩經詞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 高亨(1989), 《古字通假會典》, 濟南: 齊魯書社.
- 黃布凡 主編(1992), 《藏緬語族語言詞彙》,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唐文 編著(2004), 《鄭玄辭典》, 北京: 語文出版社.
- 任繼昉(2006), 《釋名匯校》, 濟南: 齊魯書社.
- 王輝 編(2008), 《古文字通假字典》, 北京: 中華書局

< 논저류 >

-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_____(1965),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1983年 7版).
- 羅常培·周祖謨(1958),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 北京: 科學出版社.
- 李方桂(1971), <上古音研究>, 《*Tsinghua Journal of Chinese Studies*》, 1~61.
- _____(2005), 《武鳴土語》,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陸志韋(1939), 《古音說略》, 臺北: 臺灣學生書局(1979年版).
- 潘悟云(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全廣鎮(1996), 《漢藏語同源詞綜探》, 臺北: 臺灣學生書局.
- 邵榮芬(1982), 《切韻音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 力(1937), <上古韻母系統研究>, 《龍蟲並雕齋文集》第一冊, 北京: 中華書局(1980年印刷), 80~154.
- _____(1958), 《漢語史稿》, 中華書局.
- _____(1980a), 《詩經韻讀》, 《王力文集》.
- _____(1980b), 《楚辭韻讀》, 《王力文集》.
- _____(1982),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 汪啓明(1998), 《先秦兩漢齊語研究》, 成都: 巴蜀書社.
- 俞 敏(1984), <後漢三國梵漢對音譜>, 《俞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1999年印刷), 1~62.
- _____(1989), <漢藏同源字譜稿>, 《俞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1999年印

刷), 63~120.

張希峰(1999), 《漢語詞族叢考》, 成都: 巴蜀書社.

_____(2000), 《漢語詞族續考》, 成都: 巴蜀書社.

_____(2004), 《漢語詞族三考》,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鄭張尚芳(1984), <上古音構擬小議>, 《語言學論叢》第14輯, 北京: 商務印書館, 36~49.

_____(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院學報》, 67~90.

_____(2003),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祝敏徹(1988), <釋名聲訓與漢代音系>, 《湖北大學學報》, 54~68.

Baxter, William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Bodman, Nicholas (1954), "A Linguistic Study of the Shih Ming-Initials and Consonant Clusters",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1980),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Frans Van Goetsen and Linda Waugh, editors. Keiden, 34~199.

Coblin, W. South (1974-1975), The Initials of Wei-Chin Period as revealed in the Phonological Glosses of Kuo P'u and others, *Monumenta Serica*, Vol 31, 288-318.

_____(1977-1978), The Initials of Eastern Han Period as reflected in Phonological Glosses, *Monumenta Serica*, Vol 33, 207-247.

_____(1978), The Initials of Xu Shen's Language as reflected in the Shuowen Duruo Glosse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 6, 27-75.

_____(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l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_____(1986), "The Finals of the Shiming Language", *Contributions to Sino-Tibetan Language*, Leiden: E. J. Brill, 283-344.

Downer, G. B. (1957), Review of Bodman (1954),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19, No. 2, 396.

Handel, Zev (2009), "Old Chinese Medials and Their Sino-Tibetan Origins: A Comparative Study", Taipei: Institute of Linguistics, Academia Sinica.

Karlgren, Bernhard (1915-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_____(1957), "Grammata Serica Recensã",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 Li, Fang-Kuei (1955), Review of Bodman(1954), *Language*, Vol. 31, No. 1, 153-155.
- Miller, Roy Andrew (1956), Review of Bodman(1954), *T'oung Pao*, Second Series, Vol. 44, 266-287.
- Pulleyblank, E. G. (1962-3),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Asia Major* 9, 58-144, 206-265.
- Schuessler, Axel (2007),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_____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erruys, Paul L.-M. (1957), "Notes on the Study of the Shih Ming", *Asia Major* 6, 137-199.
- _____ (1959), "*The Chinese Dialects of Han Time According to Fang Ye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Los Angeles.
- Tung, Tung-Ho (1955), Review of Bodman(1954),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14, 408-409.

< ABSTRACT >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some problems related with initials in Liu Xi's *Shiming* which is a collection of "paronomastic glosses (聲訓)" of the Eastern Han tim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about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Shiming* and I find some matters in the predecessors' studies in question. I study whether zhang series (章組) words, yi initial (以母) words, and xie initial (邪母) words preserved their phonological forms of Pre-Qin Chinese, and what types of consonant clusters as initials existed in *the Shiming*.

This study reveals that words of zhang series were not palatalized and, consequently, yi initial words and xie initial words, which had frequent contacts with words of zhang series, still retained their Pre-Qin forms. There is som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consonant clusters in *the Shiming*, while, in Standard Chinese of the period, some words seem to have lost the characteristics as clusters, and become simple initials.

The phonology of *the Shiming* in terms of the initial system was seemingly closer to Pre-Qin Chinese than to Standard Chinese of the Eastern Han time. This,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himing* phonology was returning to Pre-Qin Chinese, but means that Eastern Dialect of the Eastern Han, which *the Shiming* have most probably reflected in some of its sound glosses, retained some characteristics of Pre-Qin Chinese.

Keywords: *The Shiming*, Old Chinese, paranomastic glosses (聲訓), consonant clusters, Eastern Han Dialect, zhang series (章組), yi initial (以母), xie initial (邪母), palataliz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28	2011.2.10	2011.2.12	2011.2.15	2011.2.28